

##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 연구의 테두리 내에서, 유럽공동체의 여러 현안 중 특히 그 구성 국가들 간의 문화적 “조화”가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를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특히 외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950년 5월 9일 Robert Schuman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과 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려는 목적 아래 일차적으로 극히 제한된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대감의 형성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유럽공동체의 구상은 특히 경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꾸준히 그 구체적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동체의 형성은 각 회원국들 간의 이질성을 어떻게 다양성의 조화라는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냐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하겠다. 그럴 때 주로 각 회원국들 간의 물질적 차이를 “제지,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제 정책 못지 않게,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휴머니즘, 다양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정신을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공동체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육 정책의 목적인 바,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이를 “배타주의와의 싸움,”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미래 공동체 시민의 양성,” “문화 교류적 교류” 등으로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럽만 해도 10여개 언어를 사용하는 23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으며<sup>(1)</sup>, 이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유럽공동체가 서로 다른 언어들에 대해 어떻게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유럽의 통합을 꾀하는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사고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의 전제 조건인 까닭에 외국어 정책은 유럽공동체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럽 정신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도구가 되는 공

\* 본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유럽공동체의 주요 언어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단위:백만)

덴마크어 : 5	네덜란드어 : 20	영 어 : 60	프랑스어 : 58
독 일 어 : 78	그 리 스 어 : 11	이태리어 : 60	플투갈어 : 10

Georg-Michael Luyken, 1991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in Television*(Manchester: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a), p. 4. 박명진 외, “통합유럽을 위한 프로그램산업 :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지역융합연구소 제 1 회 지역연구 학술 발표회자료) p. 73을 참조.

동체 내 외국어의 상호 습득이라는 과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성패” 혹은 “공동체 정책의 아킬레스 건” 이라고 표현될 정도이다.

사실 회원국들의 교육 제도는 워낙 다양하고 역사 및 문화의 유산인 이러한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움직임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원국들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서로의 특성과 정책을 비교하고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각국의 외국어 교육의 혁신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결과 1976년 유럽의회와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정책의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RYDICE’라는 정보 교환 체계를 설립했다. 그후 회원국 대표들은 1982년 3월 29일 ‘유럽기금’(European Foundation)의 설립에 합의하였고 1983년 6월 19일에는 유럽 의회가 유럽의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언어 학습의 조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나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교육정책의 공동보조 속에서 우리가 유럽공동체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 및 실태를 살펴보는 작업은 그것이 경계 통합 측면의 연구와 균형을 이룰 때 유럽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가능케 해주어 우리와 유럽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공동체에 대응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언어장벽같은 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이들 국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외국어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고 교사교육, 평가 등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방향 제시 및 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정책

원                    윤                    수

(불어불문학과 교수)

## I.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의 취지와 방향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는 크게 언어적, 문화적, 지적인 목표로 나뉘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습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나라와는 다른 외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역사, 관습, 그 나라 국민의 사고 방식, 생활 형태 등을 접하도록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양시켜준다. 즉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 구조를 익히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모국어에 대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에 이를 수가 있고, 더불어 또 다른 외국어를 힘들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언어적 목표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일상 회화와 독해가 가능하도록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론적인 측면이 풍부한 어휘의 습득과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실제적인 측면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생활 언어에 대한 감각을 익혀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언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론적인 측면에만 치우칠 경우 학생들은 풍부한 어휘력과 문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문장 이해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나 잡지류를 거의 완벽하게 해독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말하기, 듣기 등)은 길러지지 않는다.

반면에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생활 언어 감각을 익힐 수 있으므로 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즉 죽은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언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생활에서의 의사 소통에만 언어 교육을 국한함으로써 올바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의 결여와, 한정된 어휘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어휘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문장구조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요하는 텍스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언어 자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고 불충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언어 교육의 두 가지 측면 중 그 어느 것도 경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다른 두 가지 목표, 즉 문화적 목표와 지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언어 교육에서 언어적 목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 2. 문화적 목표

우리는 프랑스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미나<sup>1)</sup>에서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어떤 언어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주입하거나 의사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어만을 가르치는 것은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가 배어 있는 심오한 언어 전체의 극히 피상적인 일부분에 불과한 빈약한 언어를 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언어를 단지 언어로만 환원시키지 않고 언어의 복잡성과 실체를 접하게 함으로써 단어 이면에 있는 문화 요소를 직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언어 습득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점 더 풍부하게 어휘를 활용하고 꽤 양질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면모들을 만나게 가능하다. 우선 학생들은 그 나라 언어로 된 책들과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폭넓게 접할 수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익숙해 있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과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고 또한 언어 자체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들을 간파할 수도 있다.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상으로 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각 언어마다 발달되어 있는 어휘의 종류가 다르고 문장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이 있는 데서 기인한다.

요컨대 학생들은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다

1) cf.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Actes de colloque, juin 1990, INRP, 1991.

양성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목표는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구체적인 교육 방식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3. 지적 목표

외국어 교육이 지적 형성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국(自國) 문화의 절대성에서 벗어나 다윈론의 정신 속에서 차이들을 더욱 용이하게 받아들여지며, 그리하여 판단력과 추론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처럼 다원적인 사고와 열린 시각을 길러주는 지적 훈련은 문화적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더 나아가 외국어 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적 능력을 통해 학생들은 여타 인문학 과목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 이해하고자 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어도 더욱 쉽게 습득하게 해준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와는 달리, 언어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분석에서부터 그 언어에 접근해 가는 것이므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반추해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비교하고 각 언어의 특징을 더욱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각 언어를 더욱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언어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에서 교육되고 있는 외국어는 영어,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그리스어 등 무척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교육되고 있는 주요 외국어인 영어와 독

언어	교육 단계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영 어			3,693,524(공립)	
			1,054,659(사립)	
독 어			1,052,117(공립)	
			245,779(사립)	
스 페 인 어			883,559(공립)	
			290,194(사립)	
이 태 리 어			145,289(공립)	
			21,944(사립)	
포 르 투 갈			13,401(공립)	
			213(사립)	
네덜란드어			499(공립+사립)	
덴 마 크 어			140(공립+사립)	
그 리 스 어			80(공립+사립)	

(전체 학생 : 중·고등학교 4,224,794 공립 1,151,838 사립)

어,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로 1986~1987 사이에 프랑스의 공·사립 학교에서 채택된 외국어 선택 현황을 보여주는 도표<sup>2)</sup>를 보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외국어들이 제 1 외국어와 제 2 외국어로 채택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sup>3)</sup>가 있다.

<중 학교>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영 어	85%	17.6%
독 어	12.8%	27.8%
스페인어	1.4%	47%
이태리어	—	6%
기 타	0.8%	1.6%

<고등학교>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영 어	82.5%	19%
독 어	14.9%	34%
스페인어	1.7%	40.5%
이태리어	—	4.9%
기 타	0.9%	1.6%

위의 도표들을 토대로 하여 볼 때 프랑스에서는 영어와 독어, 스페인어가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으며 특히 제 1 외국어로서는 영어가 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상 아무리 제 1 외국어로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해도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결과 이전에 제 1 외국어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독어는 점점 밀려나 제 2 외국어로 채택되거나 아니면 외국어로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스페인어의 경우 제 1 외국어로서의 입지는 잃었지만 제 2 외국어로서는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 많은 학생들이 배우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들<sup>4)</sup>이 제 2 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편중된 언어 교육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cf.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statistics*(Working document-March 1989), Eurydice, p. 8.

3) *Enseignement*, 「Avenirs—Les langues étrangères... des études, des métiers.—」 N°375-376, p. 7.

4) 유럽 각국의 언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언어들도 제 2 외국어로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다.

*Enseignement*, 「Avenirs—Les langues étrangères... des études, des métiers.—」, n°375-376,

## II.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프랑스의 학제<sup>5)</sup>는 국민학교 (école primaire) 5년, 중학교(collège) 4년, 고등학교(lycée) 3년을 합하여 총 12년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국민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외국어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70년대에 실시되었던 외국어 조기교육의 결과와 그 성과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

### 1. 국민학교 (école primaire)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단지 몇몇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단 하나의 외국어만이 교육되는데, 영어,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의 하나가 채택된다. 이 글에서는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실시되었던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 조기 교육의 현황과 성과, 그 평가를 살펴보고,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6)</sup>

p. 6.

*Répartition des effectifs d'élèves par langue étudiée et par cycle(1985)*  
*Enseignement public+privé. France métropolitaine*

	Premier cycle		Deuxième cycle long			Deuxième cycle court		Totaux
	LV <sub>1</sub>	LV <sub>2</sub>	LV <sub>1</sub>	LV <sub>2</sub>	LV <sub>3</sub>	LV <sub>1</sub>	LV <sub>2</sub>	
Allemand	408,531	327,309	173,147	293,392	7,635	37,977	446	1,248,437
Anglais	2,701,197	207,339	957,249	162,762	214	562,604	293	4,591,658
Arabe	3,970	3,459	965	1,017	1,105	744	7	11,267
Chinois	41	1,041	46	274	874	5	0	2,281
Espagnol	43,714	561,126	20,149	346,110	47,036	17,203	926	1,036,264
Hébreu	187	1,780	455	1,585	639	181	404	5,231
Italien	6,157	70,412	4,821	41,748	33,964	2,258	87	159,417
Japonais	0	165	18	10	226	0	0	419
Néerlandais	0	84	2	105	284	42	9	526
Polonais	126	56	7	65	140	1	0	395
Portugais	9,684	391	708	427	1,558	328	49	13,145
Russe	4,412	4,337	2,437	5,984	8,392	2	2	25,566
Totaux	3,178,019	1,177,499	1,160,004	853,479	102,067	621,345	2,223	—

5) 프랑스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을 11학년 (classe de onzième), 중학교 1학년을 6학년 (classe de sixième), 고등학교 1학년을 2학년 (classe de seconde), 2학년을 1학년 (classe de première), 3학년을 마지막 학년 (classe de terminale)으로 지칭한다.

6)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관한 것은 1990년 6월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cf.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Actes du colloque, juin 1990, INRP, 1991.

## (1) 조기교육의 필요성

어린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국어의 경우, 성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힘겹게 익히게 되는 언어의 구조를, 명백한 이해가 없이도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츨스키 Chomsky는 이를 생득설 innéisme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국어의 언어 구조에 익숙해지기 전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익히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여 1954년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조기 교육에 대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조기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으로 외국어 교육 과목으로 채택되는 영어 외에도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모국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인 3세부터 국민학교 마지막 학년인 1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교육 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서 7년까지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9세에서 11세 사이에 즉, 국민학교 4~5학년 사이에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③ 70~80년대에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영어나 독어를 가르쳤지만, 90년대 이후로는 대체로 주당 1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편성되었다.

(2) 구체적 사례<sup>7)</sup>

1973년~1974년에 걸쳐 프랑스에서 실시된 조기 교육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 ① type A

## a. 독어

- ◆ 유치원에서 실시
- ◆ 독일인 교사에 의해
- ◆ 하루 30분씩 2~3회 (1주일에서 4~5일)
- ◆ 교육 기재없이 교사의 재량껏 자유로운 대화 중심으로
- ◆ 결과——처음에는 놀이, 섹놀이, 노래, 춘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였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한 결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싫증을 냈다. 또한 아이들의 외국어 습득 능력이 고르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교사의 자질에 기인한 결과였다. 한편 후임 교사가 어느 정도 독어를 배운 아이들을 적절하게 계속 교육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 b. 영어

7) cf.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Actes du colloque, juin 1990, INRP, 1991, pp. 63-70.



- ◆ 독어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
- ◆ 독어 교육과의 차이점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교환 협정이 없기 때문에 영국인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자질이 불충분하였다. 프랑스의 고등 사범학교 학생들과 1년 교환으로 프랑스에 온 영국의 교육 대학(Colleges of Education)의 학생들이 수업한 경우에는 간혹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② type B

## a. 독어

- ◆ 국민학교 고학년(3, 4, 5학년)에게 실시
- ◆ 프랑스인 교사에 의해
- ◆ 3년간 연속적으로 실시
- ◆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 ◆ 계속적인 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주당 2시간 30분씩 수업
- ◆ 결과가 매우 좋았다.
- ◆ 6학년에서 외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 40%에 불과하여, 취약점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b. 영어

- ◆ 동일한 방식에 의해
- ◆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 ◆ 결과는 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했으나에 의해 좌우되었다.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교사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 3년 동안 중단없이 이루어지는 교육, 중학교 1학년에서도 외국어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③ type C

## a. 독어

- ◆ 알자스 지방에서 실시
- ◆ type B와 동일한 방법
- ◆ 국민학교 마지막 두 학년인 4, 5학년에서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 ◆ 사투리를 쓰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많았다.
- ◆ 중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3) 평가

조기 교육의 교육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조기 교육에 부여하는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 목표는 단기간의 것인가, 장기간의 것인가에 따라, 혹은 언어학적인 것인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교육적인 것인가(다른 외국어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길러주는 것)

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 교육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우선 조기 교육이 제 2 단계에서의 언어 교육을 용이하게 하는가, 그리고 다른 문화 실체에 눈뜨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외국어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 최소한의 요구는 이후의 과정에 그것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외국어의 문법이나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을 경우 그러한 혼란은 오랫동안 교정하기가 어려우며, 외국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그 언어가 쓰여지는 나라에 대해 어린이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이 또한 조기 교육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입학성 중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조기 교육을 받은 한 학급의 경우, 88.5%가 듣기에 있어서 초보자보다 우수했고, 발음에 있어서는 약 80%, 말하기에 있어서는 76.9%, 어휘 능력에 있어서는 71.8%가 초보자보다 우수했다. 발음에 관한 한 긍정적 효과가 불명확한데, 그 이유는 국민학교에서의 교육이 언어 전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운 학생들과 중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철자와 독해력, 작문, 문법이었다. 이것은 조기 교육의 방식이 주로 시청각 교육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말하기에 역점을 둔 결과 쓰기 연습을 하지 않고 정확한 문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세미나에서 크레프(G. Krebs)이 제시<sup>8)</sup>하고 있는 올바른 조기 교육은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의 균형잡힌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자로 이루어진 외국 문화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실제로 어린이는 실생활에서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글로 쓰여진 많은 외국어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학교에서도 쓰기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어린이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므로 외국어를 배울 때 말하고 듣는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발음에 따라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소리가 있으므로, 철자의 표기를 가르쳐 그 구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 체계와 말하기 체계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처음 언어를 배울때부터 쓰기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의 체계를 인지하게 하고, 글쓰기 체계와 말하기 체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쓸 때

8) 그의 발표문은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Actes du colloque, juin 1990, INRP, 1991, pp. 109-111에 나오는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place et fonctions de l'écrit」이다.

는 동사에 s를 붙이지만 발음 상으로는 /s/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He like(s) sports, I (ll) lend you my book.) 두번째 예문에서도 괄호 안의 철자는 마찬가지로 거의 들리지 않는다. 청각 능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발음 규칙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을 교정하기가 어려워지며 그 언어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게 하기도 어렵다.

이외에도 쓰기 교육은 어린이에게 외국어와 모국어의 차이를 인지시켜줄 수가 있다. 철자로 확인한 외국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두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어린이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철자를 알게 되는 것이 어린이에게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어린이에게는 외국어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고 개발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는 자기가 배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외국어로 된 단어들 많이 나오는 자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에 나오는 국명, 인명, 도시명, 가게 이름 등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서로 어울려 쌍을 이루고 있는 음성/철자에서 드러난 지속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조기 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에 의거한다.

- ◆ 교사들에게 적절한 교육 실시
- ◆ 외국어를 전공한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재교육 실시
- ◆ 적절한 시간표
- ◆ 적절한 방법, 즉 학생들의 나이와 관심사에 맞추고, 언어 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 선택된 방법에 의해
- ◆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실시
- ◆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 실시
- ◆ 점차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평가 실시

## 2. 중학교(collège)

중학교에서는 두 개의 외국어가 교육된다.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인 제 1 외국어로는 영어나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그리고 그밖의 다른 외국어들을 선택할 수 있다(p.5의 도표 참조). 학생들이 3학년(classe de quatrième)부터 선택할 수 있는 제 2 외국어는 스페인어, 독어, 영어, 이탈리아 등이 있다. 이 두 경우에 수업 시간은 둘 다 주당 세 시간이다.

중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목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목표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언어적, 문화적, 지적인 목표로서, 학생들에게 일상 회화와 독해가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배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와 문명에 접하

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형성에도 유용한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언어별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영 어

1) 1학년(class de sixième)

이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독해, 작문이라는 네 가지 언어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문법, 어휘(1학년에서 배워야 할 단어는 555개이다), 음성학, 회화와 같은 기초 영역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sup>9)</sup> 문법 교육은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문법적인 차원과 기능적이고 의미론적인 차원이 그것이다. 문법적인 차원이란 학생들이 익혀야 할 문법적인 구조와 어휘들의 자세하고 정확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적이고 의미론적인 차원은 발화자(énonciateur)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진술하였는지 문맥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if you like>는 문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조건문으로 된 종속절이고, 기능적이고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양보나 무관심을 표현하는 데에 쓰이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영역으로 둘 다 올바른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후로도 문법교육은 언제나 이 두 차원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학교에서 외국어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운다. 이때 교사는 새로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영어가 그들의 주변에 말이나 글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사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어 어휘를 알고 있는데, 가령 불어와 철자가 똑같은 단어들(radio, télévision, cinéma, table 등)이나 영어에서 차용된 단어들(jogging, fair-play 등)을 그들은 이미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새로운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처음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 중의 하나는 정확한 발음의 습득이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교사가 들려주는 녹음 테이프를 듣고 정확하게 모방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그러한 어휘를 대화에서 사용함으로써 확실하게 발음을 익힌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시각적인 기재들, 즉 그림이나 사진, 영화, 비디오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영어권 나라들의 생활 양식(가족 생활, 축제, 전통 등)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심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유도하여 그 언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9) cf. *Collèges, programmes et instructions*, CNDP, 1985, p. 119.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보면<sup>10)</sup>,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어와는 다른 영어의 발음과 엑센트, 리듬들을 듣고 그것들을 서로 구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ship/sheep을 구별하는 방법, 혹은 불어의 sandwich와 영어의 sandwich를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듣고 이해한 표현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반복하도록 한다. 그리고나서는 모방에서 벗어나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한다.

—텍스트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말로 이해하고 표현한 문장이 글로 표현된 형태를 인지하는 것을 가르친다.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법적인 구조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작문 능력은 말하기 능력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 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옮겨 적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가 세심하게 학생들이 표현한 문장을 지도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수법은,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교육받던 국민학교에서 여러 선생님이 가르치는 중학교로의 이행은 학생에 따라 커다란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방법이 교사에게 요구된다. 1학년 학생의 경우 외국어는 새로 배우는 학과목이지만 모국어의 능력 정도, 지적인 수준, 논리적 사고의 발전 단계와 깊은 연관이 있어,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는 다른 어느 학년보다 심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수준에 따라 각각 상이한 학습 내용을 부과한다. 가령 그룹에 따라 다른 텍스트 다른 그림을 이용하고, 중점을 두는 영역도 그룹에 따라 문법, 독해, 말하기, 작문 등 다르게 설정해 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 전 교과를 눈으로 읽는다.
- ◆ 반복해서 읽는다.
- ◆ 새로 나온 단어를 모두 찾아 정리한다.
- ◆ 단어들과 표현들의 의미를 확인한다.

또한 주기적인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구두 시험 :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된다.

—필기 시험 : 이 시험으로 세 가지 능력, 즉 듣기, 독해, 작문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적 취향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에 따라 교육 방법이 다르므로 평가도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10) cf. *Anglais, classes des collèges 6<sup>e</sup>, 5<sup>e</sup>, 4<sup>e</sup>, 3<sup>e</sup>*, CNDP, 1989, pp. 19-20.

이 평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알게 해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와 병행하여 자신의 능력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학력 평가 시험도 치르는 것이 좋다.

## 2) 2학년 (classe de cinquième)<sup>11)</sup>

중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1학년 단계에서 살펴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기본적인 틀로 삼고 2, 3, 4학년은 그것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 심화시켜가는 과정이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휘 : 559단어

—문법 : 문법적인 설명과 기능적이고 의미론적인 설명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의문문, 평서문, 부정문)를 익히게 하고, 새로 배우는 품사들(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

## 3) 3학년 (classe de quatrième)<sup>12)</sup>

—1, 2학년에서 배운 어휘에 덧붙여 3, 4학년에서는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 실력을 갖게 한다.

—문법 : 기능적이고 의미론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화되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문법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부사와 전치사, 더욱 다양해진 표현들로 문장이 풍부해지도록 한다.

## 4) 4학년 (classe de troisième)<sup>13)</sup>

—어휘 : 독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단순하고 일상적인 어휘들 이외에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철학적인 어휘들을 많이 접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문맥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전을 참조하기도 한다.

—문화 : 3학년까지는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지만, 이때부터는 영어권 나라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 수준높은 텍스트를 접하게 한다. 이러한 텍스트에는 시와 콩트, 단편소설, 장편소설의 발췌, 요약문 등이 있다.

### (2) 독어<sup>14)</sup>

#### 1) 1학년

기본적으로 영어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중간 단계에서는 이미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점차

11) cf. *Collèges, programmes et instructions*, CNDP, 1985, pp. 121-123.

12) cf. *Collèges, programmes et instructions*, CNDP, 1985, pp. 123-125.

13) cf. *Collèges, programmes et instructions*, CNDP, 1985, pp. 125-127.

14) cf. *Allemand, classes des collèges 6<sup>e</sup>, 5<sup>e</sup>, 4<sup>e</sup>, 3<sup>e</sup>*, CNDP, 1989, pp. 21-52.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법적인 분석이나 미리 머리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료를 이해하게 된다.

—1학년 단계에서 교육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초 자료의 소개, 기초 자료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토론, 기초 자료의 재구성, 실제 활용을 위한 자료의 암기, 소리내어 읽기, 그러한 연후에 문법 교육, 어휘의 의미 파악, 말하고 쓰는 연습 등을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실시한다.

## 2) 2학년

—1학년에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사가 그때 그때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게 한다. 이미 획득한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그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즉 더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 수 있게 하며 더욱 풍부하고 섬세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교사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운 것들도 계속해서 환기시켜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료를 선택할 때는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독일어권 나라의 일상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택한다. 이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자료, 즉 시나 노래, 콩트 등을 이용한다.

## 3) 3학년/4학년

—1,2학년 때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3,4학년의 경우에는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인 변화, 즉 논리적인 사고력의 향상, 추상화 능력과 비판 정신의 함양,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자료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

—1,2학년 때와 달리 시청각 자료는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보다, 학생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은 너무 단순한 것보다는 풍부한 의미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좋다.

## 3. 고등학교(lycée)

고등학교에서는 세 개의 외국어를 가르친다. 제 1 외국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이다. 제 2 외국어는 1학년부터 시작하고 제 3 외국어는 1학년과 2학년에서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고, 3학년에서는 문과계에서만(프랑스의 고등학교는 문과계(section littéraire)와 이과계(section scientifique)로 나누어져 있다) 의무적이다. 배울 수 있는 외국어로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외 여러가지 언어들이 있다. 수업 시간은 학년과 전공에 따라 주당 2~3시간, 3~5시간,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 1 외국어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선택

하여 7년간 계속해서 배우게 되고, 제 2 외국어는 중학교 3학년 때 선택하여 5년간을, 제 3 외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에서부터 배우므로 2~3년 간을 배우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중학교 외국어 교육의 연계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이미 배운 외국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지침에 의해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말과 글 둘 다에 있어서 이해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학교에서 이미 획득한 지식과 언어 능력을 강화, 확대, 심화시킨다.

—문화적으로 더욱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들(많은 역사적 주석이 달린 자료)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연구를 하게 한다.

—언어의 기능과 언어 활동에 대해 섬세한 감각을 얻게 한다.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외국어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이미 학생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외국어를 배우으로써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언어별 교육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자.

(1) 영어<sup>15)</sup>

1) 1학년 (classe de seconde)

① 목표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게 한다.

: 의사 소통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말하기, 듣기, 독해, 작문이다.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실제적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교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테스트를 통해서 고르지 않은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과 청취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교사가 관심을 가지는 주된 대상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질문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역할이 대담하는 것으로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말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언어를 배우고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나라 문화의 구조를 이해한다.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그림, 상황, 음성 자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지적 수준에 맞는 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문화 자료들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유자재로 그 자료들을 이용하게 한다.

—이미 어느 정도 숙달해 있는 언어의 더욱 고차원적인 개념들을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5) cf. *Anglais,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CNDP, 1990, pp. 15-20.



: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익힌다는 것이 지적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앞에서 도 살펴본 바이다. 학생들은 언어 활동을 통해, 즉 관찰하고, 묘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며,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언어 활동에 내재해 있는 개념들을 인지하게 된다.

## ② 교육 과정

### a. 평가

학생들의 주기적인 언어 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이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교사는 각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학생은 자신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 b. 시청각 자료의 이용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녹음기는 학생들의 청취력 향상을 도모한다. 녹음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라디오 방송(뉴스나 인터뷰)이나 연극의 일부분, 시나 소설의 발췌문, 단편소설 등을 듣는다. 또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 프로나 영화 등을 시청한다.

### c. 텍스트와 자료 이용

—중학교 2,3학년부턴 시작하는 텍스트 강독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중학교에서 중점을 두었던 텍스트 설명이나 주석보다는 전체적이고 자세한 이해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암시적인 의미, 문화적인 지시 대상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관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한다.

—수업시간 중에 다룬 작품의 발췌문만으로는 학생들을 자율적인 독서가로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한 작품 전체(단편소설, 장편소설, 에세이, 연극작품)를 읽는 훈련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자율적인 독서가가 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나이와 목표에 맞게 채택된 풍자화, 광고, 사진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의 문맥 속에서 도식으로 표시된 기호들을 읽고 해석할 줄 알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학생들의 감수성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범위 안에서 자료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2학년 (classe de première)/3학년 (classe de terminale)

① 목표: 1학년에서의 목표와 동일하다.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확고히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 입학 자격 시험(baccalauréat)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편성한다.

### ② 교육 과정

동일한 기재와 방식을 채택하지만 훨씬 풍부하고 심도깊은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한다.

a. 시청각 자료 이용

—마찬가지로 녹음기 사용, 마이크로 컴퓨터와 비디오 테이프, 영화 등을 이용한다.

b. 텍스트와 자료들의 이용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텍스트를 접하는 것이 언어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언어 활동의 본질적인 원동력이 된다.

(2) 독어<sup>16)</sup>

1) 1학년

① 목표

언어적 지식을 심화시키고 독어권 나라들의 문학, 제도, 경제, 사회 구조를 포함한 문화권 영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말하기, 듣기, 독해, 작문 능력을 증진시키는 언어적 목표가 최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와 표현이 문법 분석과 미리 머리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automatisme de langue)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② 교육 과정

a.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듣기 훈련: 자료를 처음 소개할 때 그것을 보기 전에 음성적으로 먼저 접하게 한다. 한두번 들려주어 학생들이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말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과 어려운 어휘의 이해보다는 총체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적절한 길이와 우선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줄거리가 있고, 학생들 그룹 전체의 능력에 적합한 자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소극적이거나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 경우 선불리 자료를 눈으로 대하게 함으로써 이 단계에서의 목표가 듣기 교육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되고 끈기있게 되풀이하여 들려주고, 필요하다면 어려운 어휘에 대한 설명이나 유사한 상황의 예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한다.

—말하기 훈련: 말하기 훈련은 논증과 대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종합적으로 미리 주어진 자료를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여 자세하고 풍부한 토론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재구성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방법을 배운다. 여기에 적합한 자료에는 독서 서평이나 여행

16) cf. *Allemand,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CNDP, 1990, pp. 15-41.

이야기, 영화 요약 등이 있을 수 있다. 말하기 훈련 중 교사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교사는 단지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뿐이다.

—독해 훈련 : 처음에는 이미 의미를 알고 있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풍부한 표현을 이용해 그 문장을 모방해 봄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사전 이용법을 익히고,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차 자율적인 독서를 하는 단계에 이른다.

—작문 훈련 :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제시된 어휘나 절, 속어 등을 이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다룬 자료에 의거하여 문장을 만들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 표현 욕구와 언어적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텍스트 요약, 텍스트 전환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러한 훈련을 하고 그들의 과제물을 성의있게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력 향상 : 학생들로 하여금 어휘 목록을 만들게 하여 어휘 구조에 민감하게 하고 단어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게 한다. 이때 분류는 형식적 기준(예 : -teil), 혹은 의미적 기준(예 : 동의어와 반의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b. 평가

—언어 활동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듣기, 말하기, 독해, 작문, 이 각각에 대해 적절한 방법에 의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외에 학생들의 노력 정도와 실력 향상을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적인 평가도 병행한다.

#### c. 문화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교사가 선택한 텍스트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교사는 신중하게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주로 현대 문명을 전 영역에 걸쳐 소개하는 것이 좋다(Bundesstaat, Autobahn, Datenverarbeitung과 같은 어휘들을 현대 문명을 참조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특히 학생들의 나이와 감수성에 맞는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2학년/3학년

① 목표 : 1학년 때와 동일한 원칙과 목표를 가진다.

#### ② 교육 과정

1학년 때의 교육 과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학생들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향상에 적합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에는 슬라이드, 비디오 카세트, 영화, 비디오 텍스트, 비디오 디스크 등이 있다.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형태-통사적인 이해, 어휘의 의미 파악, 문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모르는 어휘의 의미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보, 즉 작가와 작품의 위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3학년에서 독어 교육의 문화적 측면은 더 중요해진다. 통시적인 관점을 택하는 것보다 현재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좋은데, 역사적인 사실도 현재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배제하지는 않는다.

(3) 스페인어<sup>17)</sup>

1) 1학년

① 목표 : 다른 외국어와 동일

② 교육 과정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텍스트(문학 작품, 잡지, 희곡)와 그림(회화, 조각, 사진), 녹음기,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하는데, 이 중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 텍스트들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문화적 지평을 열어주며 분석과 종합, 개인적 판단의 표현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교사는 피상적인 접근을 피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서 학생들이 스페인과 남미의 스페인어권 나라들에 대해 문화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스페인의 경우 텍스트와 그림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보여주고, 1936년에서 1975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전개된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스페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고전 문학과 20세기 작품의 요약문, 회화, 음악 등도 접하게 한다.

◆ 남미의 스페인어권 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그림을 통해 그 지역과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지역이 발견되고 정복된 역사, 세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제시한다. 또한 20세기 문학 작품과 노래, 음악, 건축, 조각, 영화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2) 2학년/3학년

—1학년 때의 목표와 동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는 1~2학년, 2~3학년 사이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자료(텍스트, 그림, 녹음기, 비디오)를 다 이용한다. 역시 텍스트의 이해가 표현 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 2학년의 경우 스페인에 대해서는 시민 전쟁과 그 이후 스페인-아랍 시대의 역사를, 남미의 스페인어권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1898년까지의 역사를 보여준다.

17) cf. *Espagnol,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CNDP, 1988, pp. 15-41.

◆ 3학년의 경우 20세기 이후의 일상적인 삶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적 사실들을 교사가 신중하게 선택하여 편성한다. 다양한 텍스트와 자료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영어, 독일, 스페인어의 교육현황을 고찰해 보는 데에 그쳤지만, 그 외에도 프랑스에서 제 1 외국어로 이태리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1981년 리옹의 한 학교에서 중국어가 제 1 외국어로 채택되기도 한 것을 볼 때, 프랑스의 교육 정책이 외국어 교육 부문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상 프랑스의 문화 정책의 상당 부분이 언어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H. 바인리히<sup>18)</sup>가 설명한 것처럼, 이 언어 정책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 프랑스어를 보급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본국에서 프랑스인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여러가지 외국의 사상과 문제를 개방적으로 사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도 우리는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익힌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총체적인 인격 형성(지적 능력의 향상을 포함한)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확고한 교육 원칙에 입각하여,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고 시정하려는 일선 교육자들의 노력도 본받을 만한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가 외국어 교육에 기울이는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서 2년 동안 하나의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듣게 한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교육의 연계성을 보장하여 최대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능력 향상, 더 나아가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충분히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18) Harald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1988(DIV 4486), pp.322-323.

를 살펴보는 데서 그쳤지만, 프랑스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도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지만 대학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지적 능력에 맞는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문제점들의 해결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 REFERENCES

- Les langues vivantes à l'école élémentaire*, actes de colloque-juin 1990,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inrp), 1991.
- Collèges, Programmes et instructions*,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cndp), 1985.
- Jean-Michel Leclercq & Christiane Rault, *Les systèmes éducatifs en Europ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1990.
- Allemand,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direction des lycées et collèges), cndp, 1990.
- Anglais,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direction des lycées et collèges), cndp, 1990.
- Italien,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direction des lycées et collèges), cndp, 1988.
- Espagnol,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direction des lycées et collèges), cndp, 1988.
- Allemand, classes des collèges, 6<sup>e</sup>, 5<sup>e</sup>, 4<sup>e</sup>, 3<sup>e</sup>*, cndp, 1989.
- Anglais, classes des collèges, 6<sup>e</sup>, 5<sup>e</sup>, 4<sup>e</sup>, 3<sup>e</sup>*, cndp, 1989.
- Italien, classes des collèges, 6<sup>e</sup>, 5<sup>e</sup>, 4<sup>e</sup>, 3<sup>e</sup>*, cndp, 1989.
- Enseignement/ Apprentissage de la civilisation en cours de Langu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 1991.
-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Eurydice european unit, 1988.
- Teaching and learning, Les langues vivantes en 6<sup>ème</sup>*, Equipe de Recherche Articulation Ecole-Collège, Langues Vivantes, 1988.

## **Policie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aim of this group study is to give a picture of the situation regard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modern foreign languages i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Although educational systems in the Community countries vary considerably and this variety is the result of historic and cultural factors, educational policy makers in the European Community have long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s well as the value of information concerning innovations and changes in other Member countries. The Community countries agreed to promote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reby achieving cultural “harmony” among themselves. They even agreed to set up an information network, known as EURYDICE, in order to increase and improve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policy. On the whole, the three countries strongly supported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on the premises as follows: 1) the experie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makes its unique contribution to allowing students to explore the life-style and culture of other lands; 2) a foreign language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learning generally; 3) learning a foreign language fosters sympathetic but not un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people of the foreign country, helping students to appreciate their culture; 4) effective learning language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skills of communication.